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 □□□ □□□□ □□□□ 2021□ □□□□□□□□ 12□ □□ □□□□ □□ □□□.

□□□ YANG Jiw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Q. □□□□ □□ □□ □ □□□□□ □□ □□□ □□.

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Yellow Blues>(2021) 0000

00000 2021, 0000000 000, 00, 2021(00: 00000000 00, 000 00)

Q. 000 0000 000 00 000 0000 00 000 00 00 00.

A. 00000 00 000 0000000 00 00 00 00(<Yellow Blues> 000)0 0000000 00. 20200000 000 000190 00 000 000 000000 '00 000 000 0 00 00'0 0000 00 000 000 000000, 000 0000000 000 000 00 0 000 000. 000000 00000 00000 00000 0000000 00000 00 000 000000 00 000 000 000 00 00 00 000 00 0 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 000 (self-consciousness)0 0000 00 0, 00 000 000 00000 00 00 000 0000 00 000 00 00 000 00000 00000, 0000 0000 0000 00 0000000 0000 00 000 00 0 0 0000 00000. 00 00 0000 00 0000 000000 0 0000 00 00 00 0 000000, 0000 0000 0000 0000 00 0000 0000000 00000 0000 0000 0000000 0000.

00000: jiyoungyoon.com

0000 LIM Hyungsup



2010년 12월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민준 씨(30)는 “친구들하고는 다르지만, 저는 친구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친구들끼리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친구들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친구들끼리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친구들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Q. 친구들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소통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A. 저는 친구들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친구들끼리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친구들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친구들끼리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친구들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민준 씨(30)는 “친구들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친구들끼리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친구들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친구들끼리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친구들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woodenman, 山本京次郎, 7分 58秒, 2017
「Monologues」, CICA Museum, 東京, 2020

Q. この作品が何を表現しているのか、その意図を説明してください。

A. この作品は「Woodenman for 4CH Audio-visual」(2017)という4チャンネルのオーディオ・ビジュアル作品である。この作品は、デジタル技術を用いて作成された。背景は暗い青色で、画面には多くの垂直のストロークがあり、それぞれに数字や記号が散らばって表示されている。これらのストロークは、まるで木製の柱や文字が落下しているように見え、視覚的に非常に印象的な効果を生み出している。また、音声面でも、これらの数字や記号がランダムに発音され、一種のデジタル的なモノローグを形成している。この作品は、デジタル技術と人間の認知の関係を問い、また、デジタル空間における「木」や「人」の象徴的な表現を探っている。

* この作品は、デジタル技術を用いて作成された。その意図を説明してください。